

# 나가야 동계올림픽과 자연보호

편집부

최근 일본에서는 199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수상을 최고고문으로하여 각계의 대표들로 구성된「전국협력체계」(유치위원장:吉朴나가야 현지사)를 추진하고 있다. 1998년 동계올림픽은 구미각국의 후보자와 경쟁하여 1991년6월에 IOC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나가야는 유력한 후보이지만 나고야유치실패의 기억이 생생하여 속단할 수는 없다.

특히 우려되는것은 활강의 신설코스에 대한 자연보호론이다. 이런 경우는 외국에서도 똑같이 논의가 발생하여 커다란 마이너스요인이되어 유치전·후에도 문제가된 예가 많다. 일본에서 샷보로 이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면 매우 기쁠것이다. 그 실현을 위해서라도 자연보호문제에는 정확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연파괴는 최소한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가능한 한 이용하여 간소함을 목표로하여 정비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신설 활강코스를 건설할 예정의 岩菅과 산성은 이미 20여개소의 스키장을 갖고있는 志賀 고원중에서 예외적으로 개발을 면하였다. 동쪽 경사면은 너도밤나무 등의 원생림으로, 국립공원의 특별지역 예정지의 북쪽경사면은 전쟁전부터 벌채가 중단되어 회복이진행되어 영양과 반달곰등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남서로 이어지는 志賀山일대는 UNESCO에서 「인간과 생물권(MAB) 계획」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풍요하고 귀중한 자연환경이 코스신설로 파괴될우려로인하여 일본자연보호 협회를 비롯하여 일본생태학회, 일본포유류학회, 일본산악회 등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나가야 현의 자연보호연맹도 같은 입장을 나타내고있어 올림픽을 계기로한 민간의 개발전략에도 커다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모든 올림픽 개최에 직접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전문적인 연구도 없었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유치위원회측은 당초안의 코스위치를 변경하였지만 岩菅산성내에 설치되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①눈의질이 좋다. ②기존 스키시설에서는 영업문제가있어 장기임대가 어렵다. ③타종목의 장소에 가까워서 선수이동이 용이 등을 들수있다. 적극적으로 岩菅산성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26일에 개최되는 실행위원회에서 코스신설안을 채택, 이 논의를 결정할 방침이다라고 한다. 이것은 반대론자나 개최지의 투표권을 가진 국제 IOC위원회에게도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연파괴를 우려한 주민의 반대투표로 좌절된 덴버, 로잔느, 국립공원의 대회장을 거절하면서도 4번이나 간신히 유치한 캘거리. 최근의 동계올림픽의 개최는 대회장의 자연보호문제에 대해 IOC의관심이 매우 높다. 한번이라도 올림픽으로 파괴된 자연은 복원할수 없다는 소리가 높아 IOC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광역개최도 검토하고있다. 그렇게된다면 국경을 초월한 개최도 가능하게 된다. 올림픽 유치에 탄력을붙이고 있는 알파인스키의 91년 왈트카프의 개최를 목표로한 나가야현은 환경문제 해결의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기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못하고있다.

모처럼의 나가야올림픽의 기회를 잃을수는 없다. 최종적인 코스결정에 따르면 상세한 자연보호계획이 따르지않는다면 국제적인 이해도 얻을수없다.\* (이 자료는 「아사히신문」90년 1월26일자 사설을 발췌. 게재한것입니다.)